

서울무악RC 위성클럽 발족식

무악로타리 회원 영부인 15명으로 구성, 10월 24일(화) 창립식 개최 예정



서울무악로타리클럽(회장 강석건)은 지난 9월 27일(수) 오후 6시30분 호텔 더 디자이너스에서 이순동 총재와 함께 위성클럽인 무악로타리 위성클럽 발족식을 가졌다.

서울무악로타리클럽 회원들의 영부인 15명으로 구성된 '(가)무악로타리 위성클럽'은 회장에 성태영, 총무에 최숙희 회원이 추대되었으며 오는 10월 24일(화) '더 리버'에서 창립식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마포RC 9.18~22 마포구 경로당 74곳 방문, 떡과 다과 전달

서울마포로타리클럽 윤성주 회장 및 회원들은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봉사주간으로 마포구 관내 경로당 74곳을 방문하여 떡과 음료, 과일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을 격려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의 690만원이 소요되었다.



새한양RC 송원규 회장 '컴패스코리아'에서 직장주회 및 친환경 비누만들기 봉사 실시

새한양로타리클럽(회장 송원규)은 지난 9월 18일 직장주회를 개최했다. 이날 직장주회는 송원규 회장이 경영하는 컴패스코리아에서 개최되었으며, 우수 사원 표창장과 상금 전달하고 격려하였고 기부단체에 전달하기 위한 "친환경 EM비누만들기" 행사도 진행했다.

이 날 제작한 비누는 클럽회원들이 직접 포장하여 구로구청 복지정책과 산하 푸드마켓(전국 자치단체 산하에 있으며 소외계층 생필품 무료 배급처)와 관악구청 산하 관악드림스타트센터(0~2세 소외계층 어린이 보육기관)으로 전달됐다.



서울삼청RC, 강영규 회원의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서 직장주회

서울삼청로타리클럽(회장 최인훈)은 지난 9월 27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대호 강영규 회원의 직장을 찾아 직장주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국가사회를 위하여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한평생 봉사하다가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수호에 기여하고 현직 경찰의 지원, 사회봉사활동의 추진, 회원상호간의 협동정신 양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이날 주회에는 又玄 최인훈 회장을 비롯하여 18명의 회원과 서울로타리클럽 6명의 회원들이 함께 방문하여 직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모범 직장인으로 이현준 과장, 광민구 과장에게 표창장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 한성RC, 파주헤이리 예술마을서 야외주회

한성로타리클럽(회장 손미선)은 지난 9월 28일(목)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로 회원 19명과 게스트 3명이 야외주회를 다녀왔다. 타임 앤 블레이드 박물관에서 관장님의 설명과 함께 관람 후 관장님의 공연을 보며 다과와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맛있는 점심 식사 후 헤이리 마을 산책하고 황인용 뮤직스페이스에서 차를 마시며 음악감상을 하며 야외주회를 마쳤다.



| 서울무악RC, 그루터기 배움터 지역아동센터 학생 36명과 함께 추석 명절 장보기 봉사주회



서울무악로타리클럽(회장 강석건) 제900회 주회는 그루터기 배움터 지역아동센터 학생 36명과 함께 명절 장보기 봉사주회로 개최되었다. 지난 9월 19일(화) 오후 4시30분 이마트 목동점에서 봉사프로젝트위원회(부회장 김중문/위원장 김성일/부위원장 문승현) 주관으로 개최된 봉사주회는 가정 형편상 마트에서 장보기를 경험하기 힘든 어린이들과 함께 회원이 조를 이루어 명절맞이 장보기를 하며 쇼핑의 좋은 경험과 함께 경제관념을 키워주고 개인별 작은 선물을 하자는 취지의 봉사 프로그램이다.

그루터기 배움터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그루터기 배움터가 위치한 개봉 제1동은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상업, 일용근로직 등에 종사하는 서민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 밀집 지역으로 주택의 67%가 노후 된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224세대로 전체세대 중 3.5%를 차지하고 있다.

| '광진구 중곡4동에 울려 퍼진 신나는 노래 한마당'

서울문화로타리클럽과 물푸레합창단 리틀랙트클럽의 연합봉사

지난 9월 27일(수) 오후 2시에 광진구 중곡 4동 주민센터 5층의 강당에는 이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짧지만 그 동안 연습한 "내 나이가 어때서" 가요를 중곡 4동 산하의 4개 경로당 노래 경연 대회가 있기 때문이다. 경희수 위원장은 한주에 40분씩 4개 경로당을 돌며 노래를 가르치고 3주 동안 3회의 연습을 하였다.

처음에는 무슨 노래 대회냐며 부정적인 모습이었던 어르신들도 2,3 번 가면서 박수치며 열심히 연습을 하셨고 더 적극적인 경로당에서는 의상까지 통일해서 나오는 등 많은 변화를 찾아 볼 수 있었다.

9월 27일, 각 경로당별로 앞에 나와 "내 나이가 어때서"를 흥겹고 열심히 부르는 모습에서 천진난만한 모습까지 찾아 볼 수 있었다.

노래 한마당 행사는 양병우 사회자로 진행되었으며 손성일 가수를 비롯한 3분의 가수와 색스폰 동호회의 찬조 연주 등 어르신들이 신명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경희수 위원장은 "이번 봉사의 의미를 어르신들의 참여에 두었다"고 하며 "선물이나 음식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간단한 노래를 무대에 나와 직접 참여하므로 어르신들의 자신감과 성취감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이다"라며 "연습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어르신들끼리 친목도모도 되었고 그 동안 안 나오셨던 어르신들도 참여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전한다.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의 손에는 서울문화로타리클럽에서 준비 한 무릎담요와 고무장갑을 넣은 선물을 한분 한분에게 전달하였다.

